

# 전북자치도, “전북도민의 날 오늘 개최”

도정 주요 일정 발표… 21일 전북 스타트업 벤처 투자유치 IR 행사 · 23일 청년 창업 박람회 · 24일 전주 페스타 등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은 지난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24일 예정된 도정 주요 행사와 추진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도청 공연장에서 ‘전북도민의 날’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도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북도민회 및 호남향우회 고향 방문 행사’가 이틀간 도내 주요 관광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도내 출향 인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21일 오전 11시에는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전북 스타트업 벤처 투자유치 IR 행사(라운드 스케일업)’가 개최된다.

약 10개 유망 스타트업이 참여해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및 성장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같은 날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 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스마트, 비즈 엑스포 전시회’가 열리며, 전북도는 관로 개척 및 첨단 기술기업 지원을 위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은 21일 2차전지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 할 예정이며,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24일 예정된 도정 주요 행사와 추진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과 기업 지원정책을 논의한다.

22일에는 오전 10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산업 박람회’가 열린다.

사회복지, 돌봄,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민간 협력 사례가 전시된다.

23일 오전 10시에는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원회’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전북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방향, 피지컬 AI 사업 추진 현황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3~24일 양일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는 ‘제2회 전북 청년 창업 박람회’가 열린다.

청년 창업기업의 제품 전시·판매, 라이브커머스, 투자 데모데이, 창업 상담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같은

기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새만금 2차전지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국제 포럼과 기술교류, 산업 홍보 행사가 함께 열린다.

이밖에도 20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 개회, 22일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결단식, 23일 오후 2시 ‘안전한 국’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다.

김 대변인은 “24일에는 정오에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페스타’ 개최식이 열린다.

다음날인 25일 오후 3시에는 ‘전주 비빔밥축제’ 개막식이 이어진다”며 “전주는 최근 여러 축제를 하나로 묶은 통합형 ‘전주페스타’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실·국별 일정으로는 △정신건강의 날 기념 초청강연 △농생명 혁신성장위원회 워크숍 △맞춤형 케어푸드 기업 간담회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평생교육장 학진 흥재단 이사회 및 RE100 참여기업 지원계획 중간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전북자치도는 열린도장을 기조로 주요 정책과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도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 도민들의 신망이 높다.

/이만호 기자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삼천연 일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6K for Water’ 행사가 옷은 날씨에도 많은 도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 지구 반대편 아이들에게 희망을

### 2025 글로벌 6K for Water 전북행사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도청과 삼천연 일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6K for Water’ 행사가 옷은 날씨에도 많은 도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6K for Water’는 전 세계 깨끗한 식수 접근이 어려운 아동들을 돕기 위한 월드비전의 대표 국제 캠페인으로, 개발도상국 아동들이 매일 물을 구하기 위해 평균 6km를 걸어야 하는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함께 걷기와 달리기를 통해 공감하는 행사다.

이번 전북지역 행사는 월드비전 전북지회가 주최하고, 지역 시민들과 단체, 청소년 및 가족 단위 참가자 등 약 2,000여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도 6km와 10km 코스를 완주하며, 단순한 달리기를 넘어 ‘희망을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7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북선수단과 도체육회 임직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17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북선수단과 도체육회 임직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을 대표해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도민의 자부심이자 전북 체육의 미래”

라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길진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 전북, 전국체전 종목별 선전 다짐

23일까지 부산서 개최… 49종목 1594명 참가

김관영 도지사, 선수단 등 격려 선전·화합 당부

열린다. 전북에서는 49개 종목에 선수 1,132명과 임원 462명 등 총 1,594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다. 전북체고, 원광대, 우석대 등 지역 체육 명문학교와 도청 및 시·군 실업팀이 함께 출전해

각 종목별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체육은 도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자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며 “선수단의 힘과 열정이 도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으로 돌

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체육 인프라 확충과 선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선수단이 경기 기간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소, 교통, 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도체육회와 협력해 응원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관심과 응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고향사랑기부 첫 지정기부사업으로 ‘따뜻한 변화’ 시동

도, 첫 지정기부사업 발굴로 도민이 체감하는 기부문화 확산

위탁아동·시각장애인 지원 통해 나눔과 복지 선순환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첫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모금에 나선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원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형 기부문화 확산

만 원 규모의 사업비 전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한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생활지원센터 이동차량을 교체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차량이 유일한 이동수단인 시각장애인이 병원 방문, 장보기, 재활훈련 등

일상 이동을 안전하게 돋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와 복지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라며 “도민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위탁아동과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yohyang.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전북의 다양한 디페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추가 모집… 내달 7일까지

시설원예·축산 분야 각 1개소

농립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17일부터 11월 7일

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시설원예 분야 순천대학교, △축산 분야 연암대학 등 2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

며, 현재까지 7개 교육과정을 통해 약 14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후속과정 개설 요청이 잇따르면서, 농식품부는 늘어나는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소중한 추억 선물’

전북자치도-전북농협, 전주·완주 역사문화체험·힐링 하루 선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전북농협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초청해 전주·완주 역사문화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힘쓴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에도 도와 시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완주 우석대학교 W-SKY22에서 진행됐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지도 경제부지사와 이정완 전북농협 부본부장이 참석해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촬영과 함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태극선 부채 세트를 선물로 받아 큰 환호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 참가자들은 △삼례문화예술촌 △전주한지박물관 △전주한옥마을 등 전북의 대표 명소를 둘러보며 한국 전통문화의 멋과 한류의 감성을 체험했다. 특히 주요명소마다 외국인 계절근



로자들의 전북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해설사 및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문화 체험의 질을 한층 높였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러분의 현신이 전북 농업의 성장과 안정에 큰 힘이 되었다”며, “오늘의 경험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전북의 따뜻한 정과 매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 노동인력이 아닌 전북 농업의 동반자이자 민간외교관으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도, 시·군 합동 불법전용농지 교차 조사

20일부터 3주간, 유류농지 불법전용·농업시설 탄동도 사용 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업시설의 불법 이용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도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교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용 시설이 상업 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유류 농지 △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업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경작

/이만호 기자